

■ 교육

대입원서 작업은 지원 대학 리스트 작성부터

미안 1일 2023학년도 미국 대학 입시 원서 작성 사이트가 열리며 본격적인 대입 지원 과정이 시작됐다. 대입 컨설팅 업체인 아이비포커스(IvyFocus Education, www.ivyfocus.com)는 대입원서 작성을 위해 제일 서둘러야 할 일은 지원할 대학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대학 목록 작성을 위한 첫 단계는 리서치다.

관심있는 대학들의 목록을 작성해 본 후 각각의 대학의 프로그램, 전공, 부전공, 코스, 교수진, 액티비티, 재정정보, 정책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아본다. 관심있는 전공 분야가 있다면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교수나 재학중인 학생과도 직접 연락해 궁금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도 있다.

대학 웹사이트 이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최근 캠퍼스 뉴스, 이벤트, 입학 관련 정보 등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다.

대학의 이름, 명성, 랭킹만으로 막연히 목록을 작성해선 안된다. 우선 학업적으로 자신의 관심, 전공 분야와 맞는 지, 캠퍼스 구성원으로 4년간 지내기에 잘 맞는 지, 재정적인 보조 정책이 자신의 상황과 맞는 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대학의 목록들이 대략 작성됐다면 다음 단계는 그 대학들을 방문해보는 것이다. 가능하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학기 중에 방문해서 입학 사정관의 설명회에 참여하고, 캠퍼스 투어, 주변 환경 돌아보기, 특히 하루 이틀 정도 신입생 기숙사에 머물면서 학교 생활 경험을 맛볼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리서치와 캠퍼스 방문을 통해 처음보



다 탄탄한 목록을 가지게 됐다면, 이제 이들 목록의 대학들의 랭킹을 직접 만들어 본다. 대학 명단을 표로 작성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표안의 항목에 넣고 리서치와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각 항목당 점수를 표시해 보는 방법이다. 표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므로 유용한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목록 작성이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성적과 표준 점수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많은 학교(Likely Schools), 목표 학교(Target Schools), 합격 가능성이 낮은 학교(Reach Schools)로 나누어 정리해 보는 것이다. Likely Schools은 자신의 아카데미 프로파일의 해당 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중간 50% 보다 높은 학교들로 생각하면 된다. Target Schools은 자신이 중간 50% 와 비슷한 선상에 있는 학교들, Reach Schools은 자신이 중간 50% 보다 낮은 경우의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심있는 학교, 입학하고 싶은 학교가 수십 개에 달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할 수는 없다. 대입 지원서 작성은 각 대학별로 시간과 많은 노력 준비를 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만큼 지원서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12학년 학생이라면 더 미룰 시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진=shutterstock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Potato Mountain -Upland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노란 차단기를 통과하자마자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시작된다. 필자가 갈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딱따구리들이 나무를 열심히 찍으며 환영해주었다. 딱따구리 딱따구리,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나무를 부리로 찍는다. 이곳은 조류 생태 관찰에 좋은 장소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길 따라 올라간다. 오른쪽에는 깊은 계곡이 있으며 왼쪽은 산기슭이 계속된다. 계곡에는 과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금은 물 구경하기가 어렵다.

소방도로인 탓에 길이 넓고 비교적 평탄하지만 계속 오르막길이다. 20여 분 정도를 지나면서부터는 나무 그늘이 없다. 반드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착용하기 바란다. 45분 정도 올라가면 사거리를 만난다. 오른쪽은 Evey Canyon Mountain Trail로 이어진다. 우리는 왼쪽 길을 택한다. 평탄하지만 오르막인 길이 그치지 않을 것처럼 이어진다. 그러다 길이 하늘과 만났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한다.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흰 길이다. 왼쪽 아래로 커다

란 댐이 보인다. 물 한 방울 없지만 비가 쏟아지더라도 한다면 마운틴 발디의 수많은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집합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그 너머로 업랜드, 랜초쿠카몽가가 보이고 그 너머로 온타리오도 보인다. 오른쪽으로 클레어몬트, 라벤을 비롯한 수많은 크고 작은 도시들이 펼쳐져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코스지만 한여름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 쬐고 있음을 감안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왕복 5마일.

▶ 가는 길: LA에서 210번 Fwy를 타고 가다 Base Line에서 내려 좌회전한 후에 Padua Ave.를 만나면 우회전, 곧게 뻗은 길 따라 올라간다. Mt. Baldy Rd.를 만나면 우회전해서 산길을 따라 간다. 5분 정도 올라가면 도로 좌우에 주차 공간이 있다. 그곳에 차를 주차한다.

레일 헤드는 굳게 닫힌 노란 문에서 시작한다. 소방도로가 나있어 자동차를 타고 드나들 수 있기에 차량출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이다. 구글맵에서 Potato Mountain Trailhead를 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사진=타운뉴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